조계종복지재단 "시대 맞는 불교복지 실천"

6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진우 스님, 미래 복지 비전 제시
기후위기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
삼천사인덕원 등 종정 표창 수상
정관 스님,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웃과 함께 한 30년, 자비나눔의 미래 100년. 자비나눔의 꽃을 피워내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이 모든 중생을 구원해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의 서원을 세우고 시대에 맞는 자비실천을 다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 11일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30년 역사를 되짚고, 미래 100년 복지비전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1995년 창립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21개였던 시설은 181개로, 300여 명으로 출발한 복지 종사자는 5600명으로 늘었다. 10억원이 안됐던 예산규모는 현재 4000억원 이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아동과 노인에 국한됐던 복지서비스도 청소년·보육·장애인·노인·종합복지 등으로 까지 확대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이 같은 재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은 △기후위기 대응 복지 △디지털 약자에 대한 관심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속 돌봄 위기 △고립과 고독사 △아동학대·방임 대응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등을 향후 미래 복지 비전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복지는 돌봄을 넘어 제도의 문제를 바꾸는 실천이어야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불교복지는 이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자비실천은 계속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이뤄졌다. 최고 영예인 종정상은 사회복지법인 삼천사인덕원(이사장 성운 스님)과 이문희 조계종자원봉사단 화목회 팀장이 수상했다.

총무원장 표창 단체 부문에는 △사회복지법인 혜명 △서울 종로 조계사 △미타사 정수암 △영화사 △아현노인복지센터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총무원장 표창 개인 부문에는 △해성 스님(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지웅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최종환(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신미경(진달래마을 원장) △채종현(부산금정시니어클럽 관장) △오재원(재천장애인복지관장) △임아화(가람슬기어린이집 원장)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안았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박사 제1호인 정관 스님은 2007년부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소임 맡아 지역 노인복지 발전을 견인해 왔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기념법회에 앞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김형용·홍송이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불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토대'를 주제 발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과 같이 정진해 나눔의 꽃을 피워내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불교사원聯 회장 법해 스님 취임

6월 12일 서울 은평구청서
사원연합회장 이·취임법회



서울 은평구 불교계를 이끌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신임 회장에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취임했다.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이하 사원연합회)는 6월 12일 서울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신임 회장 법해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과분한 소임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대중이 셋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는 불가의 말처럼, 은평구민을 위해 40여 년 헌신해 준 성운 대종사의 법향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부처님의 자비가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디지털 시대를 기반으로 1700년 불교역사와 문화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국민행복 프로젝트인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겠다"면서 "이 같은 서원이 이뤄지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1982년부터 43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왔던 성운 대종사는 이임사에서 "사암연합회는 군·교정·지역을 중심으로 초종파적 전법 활동을 펼쳐왔다"고 술회하며 "후임 법해 스님은 능력 있고 불심 있는 훌륭한 수행자다. 신임 회장이 연합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해 달라"고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성운 대종사는 도심 속 수행공동체의 본보기를 세우고 연합회의 위상을 높여 종도들의 귀의처가 됐다"며 그동안 은평구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대종사의 원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임 회장 법해 스님을 향해서는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시대와 호흡해 온 원력으로 사부대중과 함께 조화와 공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성운 대종사와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본엄 스님의 사회와 덕현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은 △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치사 △공로패 수여 △이임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이·취임식 후 사암연합회는 '불기2569년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배희정 객원기자

제7회 묘공학술상 남수영·오현희 수상

대행선연구원 6월 5일 발표
우수상 2명…대상 수상자無


남수영


오현희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제7회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 교수와 오현희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이 선정됐다"고 6월 5일 발표했다. 올해 학술상에서는 최우수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남수영 교수의 수상작 '불타의 무아설 재고'는 붓다 당시 자아를 의미하는 여러 어원을 분석함으로써 불교의 무아설이 일방적인 자아 부정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아가 승인되었음을 밝힌 연구로서 무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현희 초빙연구원의 '대행 선사의 보리심관에 나타난 생활선 고찰'은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념을 현대적 생활선으로 풀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은 6월 14일 제9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우수상 두 편에는 각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에는 모두 14명이 신청, 최종적으로 9명이 선정됐다.

신중일 기자

〈학술대회 차주 상보〉

서울 옥천암, 독립 순국선열 추모하다

6월 7일, 서대문형무소서 호국 음악회 개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스님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호국 음악회가 열렸다.

서울 옥천암(주지 원경 스님)은 6월 7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특설무대에서 '호국 음악회-님의 침묵'을 개최했다.〈사진〉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음악회는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불교계 독립운동가 3인을 기리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뮤지컬 '영웅' OST 공연 후 트로트 가수 김태연, 장사익 씨 등의 무대가 이어지며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와 역사의식을 한층 깊게 느끼게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조계종

호국음악회를 개최한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민과 함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음악회를 준비했다"면서 "특히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수많은 스님들의 호국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라고 음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서대문구청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윤달 맞아 생전예수재 특강 열린다

경제어산보존회, 6월 24일부터 5주 과정

올해 윤달을 맞아 경제어산전승보존회가 생전예수재 특강을 개최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죄업을 참회하며 악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쌓고자 하는 불교의례다.

특강은 6월 24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서울 강서구 홍원사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초대 어산어장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경제어산 보유자인 동주 원명 스님을 비롯해 경제어산 이수자인 문현 스님과 정오 스님이 교수사를 맡아 강의를 진행한다. 입회원서는 홍원사를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수강료는 20만원이다.

한편, 경제어산전승보존회는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보존회는 학술대회 개최 및 도서 발간, 의례문 연구, 수륙재 정기 시연, 전승 교육 등 전통불교의례와 경제어산 수륙재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2-2658-3100

여수령 기자

2025 서울시 무형유산 제 43호

경제어산 보존회 신입회원 및 예수재 특강 신청자 모집

나모붓다야

서울시 무형유산 제 43호 경제어산 보유자인 동주원명 스님은 근대 어산범패 중흥조인 벽응, 송암스님께 범패를 배운 후 50여 년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및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어장 역임, 범패 교육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왕성한 기량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2013년 서울시 무형유산 제43호로 지정 되었으며, 이후 학술세미나 개최, 도서발간, 의례문 연구, 수륙재 정기시연, 전승 교육 등의 보존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불교의례와 경제어산 수륙재 에 동참하여 함께 공부하시며 계승 발전에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빠라미따

경제어산 신입회원 접수
02-2658-3100

예수재 특강접수 안내

금년 2025년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 예수재 특강을 시행합니다. 보유자인 동주원명 스님과 함께하는 경제어산의 재의식에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기간 2025년 6월 24일 까지
수강기간 총 5주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18시00분~19:30)
대 상 비구, 비구니 모든스님 (종파무관)
교 수 사 1. 동주원명(서울시 무형유산 제 43호 경제어산 보유자)
2. 문현 (경제어산 이수자) 3. 혜천정오(경제어산 이수자)
교 재 예수시왕 생칠지재의
장 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31-6 홍원사 2층 교육장
준 비 물 입회원서(방문시 직접 작성), 증명사진 1장, 승려증, 필기도구, 가사장삼
예수재 특강 수강료 20만원 (교재포함)
입금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이조원) 845702-04-162325 (입금시 속명,법명 기입)
문의 및 접수안내 02-2658-3100







